새물리 학술지 Scopus 등재 국제 학술지로서의 새로운 도약

새물리 SCOPUS 등재를 축하하며

DOI: 10.3938/PhiT.25.013

김 승 환

A Congratulatory Remark in Celebration of the Registration of New Physics: Sae Mulli in Scopus

Seunghwan KIM

New Physics: Sae Mulli (NPSM), one of the oldest Korean academic journals in natural science, representing the history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KPS), will provide a supporting foundation for the new future of physics in Korea. The registration of NPSM, a domestic journal written mainly in Korean, in the international academic database Scopus was a great achievement. I believe that the registration of NPSM in Scopus will have a significant impact both on KPS and the academic society in Korea. I, as president of the KPS, sincerely celebrate this accomplishment, and I look forward to the continuous support of all member of the KPS and of the research community.

올해는 한국물리학회의 전신이었던 '수물학회'가 1946년 창립된 이래 70주년을 맞는 해이면서 한국물리학회 최초의 학술지인 『새물리』가 1961년 창간된 이래 55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새물리』가 대외적으로 공인된 해외 저명 학술지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뜻 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새물리』는 70년이라는 오랜 역사를 지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학술단체이자 11개의 분과와 7개의 지부, 18,000여 명의 회원

을 가진 국내 정상의 학회인 한국물리학회에서 발행하는 유일한 국·영문 학술지로서, 한국물리학회가 처음으로 발행한 전문 학술지이자, 국내 자연과학 분야에서 가장 오래된 학술지입니다. 이와 같이 『새물리』는 한국물리학회의 지난 역사를 대변해 왔으며, 한국물리학회의 새로운 미래를 뒷받침하는 학술지입니다.

한국 물리학자들의 국문으로 작성한 연구 논문을 수록하는 국문 학술지로서 전통을 가진 『새물리』는 회원들의 구독, 활용, 평판, 선호도에서 명실상부 한국물리학회의 대표 학술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새물리』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이어갈 뿐 아니라 다가오는 미래에 세계적인 학술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1961년 새물리 창간 이래, 1999년 새물리와 물리교육 2개 학술지 합병, 2000년 월간지화, 2010년 새물리 영문명 개정, 각 지역 지부 학회의 지속적인 노력, 편집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2013년 자체 영문홈페이지(www.npsm-kps.org) 개설, 해외 편집위원 영입, 표지/하이라이트 논문 도입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2013년 교과부 학술정책진흥자문위원회에서 국내 5634개 학술지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대표학술지 66선에 포함되었으며,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및 한국연구재단의 국내 학술지 평가에서 매년 우수한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서 2009년도부터 국제 학술지 수준에 맞게 체제를 정비하고 더불어 국제적 수준의 학술지로서 게재 논문의 질 향상을 위해 체계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15년 8월 22일 Elsevier 담당자로부터 『새물리』가 세계 최대의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인 SCOPUS에 등재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국내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국문 학술지의 질적 수준 제고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는 현실에서, 『새물리』의 해외 저명 데이터베이스 등재는 우리 학회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출판되는 19,800여 종의 타이틀이 SCOPUS에 등재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한국 학술지는 약 150여 종입니다. 영어가 아닌 그 나라 모국어 학술지의 SCOPUS 등재는 그 지역의 특이성 관련 학

저자약력

김승환 회장은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이학박사(1987)로 미국 코넬대학교/프린스턴 고등연구소 연구원(1987-1990), 영국 캠브리지대학교 방문교수(1996-1997), APEC기후센터 감사(2007-2012),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정책자문위원(2008-2010), 대통령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수석전문위원(2009-2010), 국회 입법조사처 자문위원(2009-2012), 과실연 집행위원장, 공동대표(2010-2014), 아테이론물리센터 소장(2013-2014)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포스텍 물리학과 교수(1990-현재)로 한국물리학회 회장과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swan@postech.ac.kr)

술지를 제외하고는 대단히 미미한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에 한국연구재단에서는 SCI(E)와 SCOPUS를 모두 국제저명전문학술지로 보고 있으며, QS 세계 대학평가 등 각종 평가에서 SCOPUS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많은 대학에서도 SCOPUS를 국제저명학술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글 학술지인 새물리의 SCOPUS 등재는 그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화 시대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위해 영문으로 된 우수한 논문을 국외 저명 학술지에 게재해야 하는 것은 모든 연구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학술지가 연구자들에게 크게 매력을 주지 못하는 현실에서 국내 학술지로서 『새물리』의 질적 수준 제고와 국제화는 무척 도전적인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국내 기초과학과 산업의 발전, 후속 세대 양성과 학문성과 확산을 위해서 우리만의 학문적 가치를 만들고 담을 수 있는 국내 학술지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한글로 쓰여진 국문 학술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새물리』의 국제저명학술지 등재는 국내 학술

지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더불어 국문 학술지의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새물리』는 이러한 발전을 발판 삼아 우리말로 된 토종 학술지이면서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학술지로 더욱 발돋움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향후 Thematic Special Issues, Tutorial 및 Review Article 유치, 우수논문의 한글-영문 동시 출판, SCI(E) 등재 노력 등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충고, 그리고 질 높은 논문의 투고를 계속하여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새물리』에 출판된 논문들을 적극적으로 인용하시어 국제적인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해 지난 2011년 새물리 창간 50주년을 맞아 권숙일 교수님께서 제안하신, “모든 회원들의 첫 연구 논문은 『새물리』에 투고하자”는 캠페인을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새물리가 한국물리학회 最古의 학술지이자 最高의 학술지로 발돋움하기를 기원합니다.